# 해운업

# 운임이 최고치지만 웃을 수 없는 것은

운송/조선/기계 엄경아 T.02)2004-9585 / um.kyung-a@shinyo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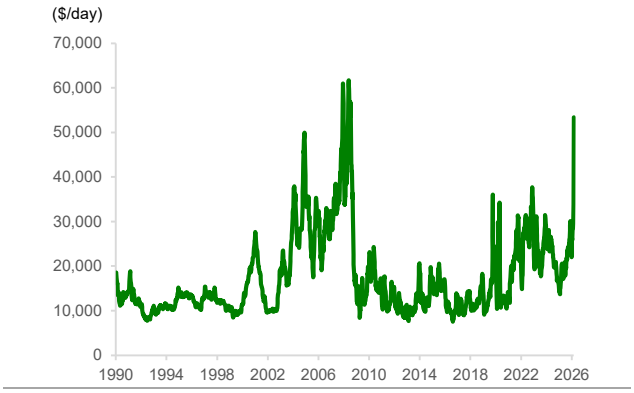
**분석의 기본 가정**

- 미국-이란 전쟁 단기간 내 상황 종료 어려움을 가정
- 친환경선박 규제 강화 흐름은 지속

## 해상운임지수 신고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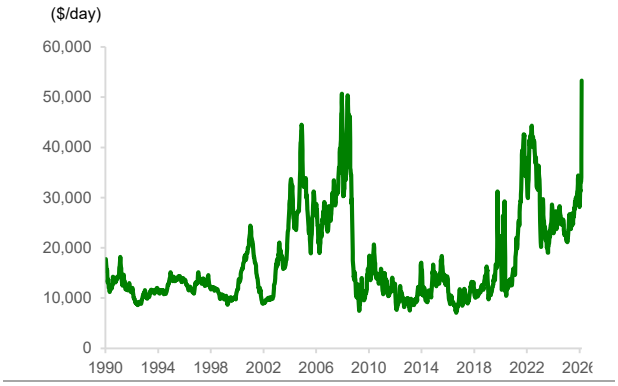
지난 주(3월 6일)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해상운임지수(ClarkSea Index)는 $53,319/day로 1990년 이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30년만의 선박사이클이라고 불리던 2007년을 상회하는 모습. 종합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022년 공급망 리스크가 최대이던 시기를 넘어서긴 했지만, 2007년을 상회하는 정도에 도달하지는 않음. 종합운임 상승에 기여한 선종은 탱커와 LNG운반선이었음. LPG운반선 운임은 미주발은 하락, 중동발은 상승함.

**클락슨 컨테이너 종합운임**




자료 : 클락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클락슨 해상운임 종합지수**




자료 : 클락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운임 상승의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음.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운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가던 화물들을 우회로를 통해서 보낼 때 생기는 육상운송 비용, 보관료 등의 증가분 전가가 바로 그것에 해당. 드라이벌크 해상운임은 호르무즈 해협이 주된 운송경로가 아니고, 극동아시아와 브라질, 호주, 인도 사이에 주로 수송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 운임 상승 움직임에서 제외됨. 다른 선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에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

##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높은 운임에 활기 잃는 시장

해상운송 시장에서 운임 프리미엄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높은 운임을 이용하는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이 중요. 홍해 사태 때와 미국-이란 전쟁은 다른 측면이 있음. 수에즈운하는 화물의 중간 통행로 역할을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원 화물의 생산지이자 출발점 역할을 함. 선적 후 출발하는 수요가 극소수인데 운임시장 호가만 높을 수 있다는 의미. 에너지화물은 스팟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에만 전체 해상물동량 유지될 수 있을 것. 중단기 운송시장 위축 피하기 어려움. 전쟁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선원과 선박자산 구하기 우선되어야

##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